

보 도 해 명 자 료

('19. 5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음

(서울경제, 한국경제, 머니투데이 5.2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◇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

◇ 5.20일자 서울경제 <전기요금 누진제, '여름완화' 정례화 검토>, 한국경제 <올해 예상적자 2조원대 한전, 전기요 올릴까, 정부에 손벌릴까>, 머니투데이 <필수 전기사용량 보장, 연 3,000억 손실 떠안는 한전>, <올 여름 4인가구 전기료 1만원 내린다>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- ☐ (서울경제) 누진제 TF에서 주택용 누진제 '여름완화' 정례화를 검토중
- ☐ (한국경제) 한전과 정부는 3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1.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함
- ☐ (머니투데이) 정부가 누진 1단계 및 2단계 사용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누진제를 개편할 예정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☐ 주택용·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

※ 문의: 전력시장과 박찬기 과장/하원석 사무관 (044-203-5173)